

美 대형은행들 경기 회복세에 1Q 실적 '대박'

서울경제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의 1Q21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배 급장했으며 웰스파고의 경우 같은 기간 7배 이상 급증하며 실적잔치를 벌였다.

지난해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완화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방식 상장 활성화의 수혜를 받았다.

대출금리 상승 우려, 현실로…내일부터 주담대 금리도 ↑

머니투데이

16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1bp 상승할 예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세(0.84%)로 돌아섰기 때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2.4~3.9% △우리은행 2.63~3.63% △NH농협은행 2.42~3.63%로 바뀐다.

씨티은행 WM부문 매력…M&A '큰 장' 서나

한국경제

한국씨티은행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 2004년 씨티그룹이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에 진출한 지 17년 만.

KB금융, DGB금융지주, OK금융그룹이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공식적으로는 인수 참가를 부인. 금융권 관계자는 WM, 신용카드 부문을 나눠서 매각할 가능성 언급

카카오뱅크, 이르면 7월 코스피 상장한다

중앙일보

한국거래소는 15일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은행업 기준으로 1994년 기업은행 이후 27년여 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카카오뱅크 주가 기준으로 환산한 예상 시가총액은 34.85조원 정도.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은행인 KB금융(22.45조원)을 넘어서는 수치

KT "뱅크샐러드 완전 인수"…네이버 · 카카오 맞불

한국경제TV

신성장사업을 쟁기는 구현모 KT 대표 직속 조직에서 뱅크샐러드 지분 60% 이상을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 뱅크샐러드가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받은 점에 주목

KT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 분야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를 출시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속도…보험업계 "이번에는 꼭"

아시아경제

지난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보험중개사, 24년만에 법적 지위 찾을까

비즈니스워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해 보험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보니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치권, 학계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의 의원들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 발의한 상태

은성수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별도조직 신설"

매일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강조. 또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한 사전교육 시스템도 오는 20일부터 가동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